

T V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5 KBS 스포츠 타임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참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 연속극 <미쓰 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교도 20 아침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9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행복산 세상	00 여유만만	10	40 SBS 뉴스
00 여성공간 55 바른말 고운말	00 지구촌 뉴스 20 TV특강(재)	11	0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00 KBS 뉴스 12	00 인간극장 스페셜 1~2부(재)	12	00 SBS 12 뉴스 30 KBC 정책대담 서규용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듣는다
00 KBS 결집전 (재방송 김탁구)(재)		1	30 도전 슈퍼대(재)
00 KBS 뉴스 10 2011 추계 대학축구대회 (결승전)	10 퀴즈쇼 사총사(재)	2	00 SBS 뉴스 10 네트워킹 현장 교황이 보인다
	00 KBS 뉴스타임 05 다오배제 불힐 대소동(재) 35 달의 신나는 우주여행	3	10 세계의 고신지대를 가다(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 청주)	00 TV 유치원 30 열기가 좋아	4	00 내친구 해치 30 트러킹과 세계여행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30 희망 릴레이	5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발견 유레카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시의 여성서	6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00 생생정보통	7	10 시사타자 따따따 20 일일시트콤 <중앙 내 사랑>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20 생방송 세계는 지금 50 1대100	8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기자가 만난 세상 <원정 21>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월화 드라마 <스파이 영웅>	9	55 월화 드라마 <미스 리플리>
00 시사기획 KBS 10 50 아름다운 사람들		10	
00 KBS 뉴스 라인 40 집중인터뷰 이사람	15 김승우의 승승장구	11	15 PD수첩
35 KBS 뉴스 45 KBS 네트워크 기획 <사람과 새 그리고 도시>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12	10 MBC 뉴스24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2018 광주동계올림픽 유치기념 특선다큐 (국가대표)

# 느닷없는 귀신 등장 시청자들 빨났다

## SBS 주말극 '신기생던' 종영 앞두고 또다시 논란

엮기적인 스토리의 SBS 주말극 '신기생던'이 이번에는 귀신과 빙의까지 등장시키며 종영을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방송사인 SBS조차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BS의 박종 드라마센터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귀신 얘기는 우리도 황당하다"며 "그간 어떻게 해서든 대본에서 그 부분을 빼려고 했지만 최근 몇화에서는 귀신 내용을 빼면 아예 스토리가 없어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입성한 작가에게 내용 수정을 계속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방송사만 죽을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에 대한 민원이 잇달아 접수되자 '신기생던'의 SBS 담당자를 다음 주께 소환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 센터장은 "이미 지난달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중징계 받았는데 이번 얘기는 우리도 황당하다"며 "그간 어떻게 해서든 대본에서 그 부분을 빼려고 했지만 최근 몇화에서는 귀신 내용을 빼면 아예 스토리가 없어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신기생던'은 최근 방송에서 잇달아 귀신을 등장시켜 아수라(임혁 분)

에게 빙의된 모습을 그렸다. 귀신의 종류도 다양해 아기동자귀신, 할머니 귀신, 임경업 장군 귀신 등이 등장했고 빙의된 아수라가 온갖 기행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심지어 지난 10일에는 아수라가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하기도 했다. 공포도, 코미디도 아닌 가족 드라마를 표방한 지상파 TV 주말극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황당한 스토리에 대해 시청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신기생던'의 제작사 측은 "작가와 감독의 생각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심의위는 '신기생던'에



대해 "기생 머리 울리기"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것처럼 미화했으며 복잡한 출생의 비밀 등 방송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왜곡된 상황 설정과 비윤리적·비현실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저속한 표현이나 협찬주에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내보내기도 했다"며 지난달 3일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 제20회 光日盃

#### 광주·전남 직장비탁대회

뜻깊은 20년 연속개최  
1회전 1보(1~10)

白 이상의 5단    黑 정장호 5단  
(광주시청A)        (포스코)

엇그제 7월 10일 장마비가 쏟아붓는 가운데 직장 비탁동호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20회 광일배 직장비탁대회가 백운동 소재 한국기원 광주지원에서 16개 팀 총 48명의 직장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성대한 개막식을 가졌다.

본 대회는 특히 강산도 두번씩이나 변하고도 남을 20년째 쉬지않고 꾸준하게 개최되는 기록을 세우며 이지역 직장동호인인 물론이고 일반 비탁팬들에게 까지 사랑을 받고 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다. 주최측과 동호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않으면 세우기 힘든 보기도 큰 대기록이다. 이번에는 전년도 우승팀 주택관리사회

를 비롯하여 최근 신홍 강호로 군림하고 있는 포스코와 전통의 강호 광주시청, KT광주본부, 변호사회 등이 대거 참석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는데 이제부터 그 열전보를 소개하기로 한다.

첫번째 소개하는 대국은 새로운 포스코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포스코의 팽장 정장호 5단과 광주시청의 팽장 이상의 5단의 격돌로 결승전을 방불케하는 비매치다.이 판의 향방에 따라 단체전의 순위가 요동칠 수도 있는 1회전의 초점국이다.

오규철 9단  
<본보 비탁해설위원>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2일(음 6월 12일 戊辰)

子	36년생 어색하고 애매할 때에는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 48년생 자격이나 공로를 인정받는다. 60년생 이동수가 보이고 매매에 길하다. 72년생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라. 84년생 한마음으로 단합 대회에 참여하라. 행운의 숫자: 89, 37
丑	37년생 법사에 감사하라. 49년생 소중할 해를 구입한다. 61년생 업무 감사 때문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73년생 경쟁자와의 꾸준한 일상이 반복된다. 85년생 신속 정확하라. 행운의 숫자: 53, 15
寅	38년생 미련은 과감히 떨쳐 버려라. 50년생 문제 해결은 빠른수록 좋다. 62년생 가족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보라. 74년생 인화 단결한다면 거침이 없겠다. 행운의 숫자: 68, 96
卯	39년생 모임 날짜가 겹쳐 고민이다. 51년생 하나가 해결되면 연쇄적으로 풀린다. 63년생 어린 시절의 꿈이 그림다. 75년생 여행을 다녀야 후회해 가다. 행운의 숫자: 84, 63
辰	40년생 직관으로 인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52년생 투자 자금 확보로 바쁘겠다. 64년생 부담스런 상사의 인사 이동이 있겠다. 76년생 보람과 성취감을 만끽한다. 행운의 숫자: 03, 89
巳	41년생 만물은 관점과 시기에 따라 달라 보인다. 53년생 부모님 생전에 효도하라. 65년생 도약만 남았다. 77년생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처세에 신경 써야. 행운의 숫자: 15, 48
午	42년생 건강 검진 결과를 과신하지 말라. 54년생 영입률이 높아지겠다. 66년생 성공한 사람을 따르라. 78년생 과시는 금물. 행운의 숫자: 10, 83
未	43년생 추억의 명소를 찾는다. 55년생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 67년생 다소 늦더라도 기쁨을 잊지마라. 79년생 떠난던 헌담이 다시 오간다. 행운의 숫자: 22, 96
申	44년생 통장 관리를 잘 해야 한다. 56년생 정도를 걷는 것은 멋지다. 68년생 고액의 관공상제에 성의 표시를 하는 것도 영업한 방법. 80년생 반가운 친구를 학교 졸업 후에 처음 만난다. 행운의 숫자: 90, 97
酉	45년생 본가의 근친들에게 영공수련 일이 줄어 있다. 57년생 보유했던 업무가 탄력을 받는다. 69년생 더불어 살아가도록 노력하라. 81년생 상사와의 단결 면담이 있겠다. 행운의 숫자: 80, 33
戌	46년생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으니 상대의 언행에 집착하지 말라. 58년생 중개인의 역할이 크다. 70년생 은사님을 찾아 비면의의 인맥을 확보할 수 있다. 82년생 열 번 도끼질할 대상도 따로 있는 것 같다. 행운의 숫자: 64, 54
亥	47년생 책꽂이를 정리하고 나니 든든하다. 59년생 이력이나 업무 성과를 정리해 두면 좋겠다. 71년생 뜻을 굽히지 말고 의연히 처리하라. 83년생 터치제에도 익숙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행운의 숫자: 34, 76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쑹구워	오하오우 니혼고
<h3>너머와 넘어</h3> <p>“우리는 힘들게 산을 너머 갔다.” 틀린 표현이다. “우리는 힘들게 산을 넘어 갔다.”라고 써야 옳은 표현이다. ‘일정한 수직에서 벗어나 지나다’ 또는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 경계를 건너 지나다’ 등 움직임의 표현에는 ‘넘어’를 쓰는 게 맞다는 얘기가.</p> <p>그러면 ‘너머’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걸까? ‘너머’는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을 뜻하므로, “우리의 목격지는 산 너머에 있다”, “산 너머 남촌”과 같이 활용하는 것이 옳다.</p>	<h3>You really have an eye for a bargain!</h3> <p>넌 물건싸게 사는데 뭔가 있어</p> <p>A : Hi Janet! That's a lovely dress you're wearing! B : You like it? I got it on sale for \$100. A : Wow! You really have an eye for a bargain! The color really suits you! B : Thanks!</p> <p>A : 안녕, 자넷! 네가 입고 있는 옷 정말 멋있다! B : 맘에 들어? 세일해서 100불에 산거야. A : 와, 넌 물건싸게 사는데 뭔가 있어, 그 옷 색이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B : 고마워!</p> <p>* lovely : 멋진, 사랑스러운 * have an eye for = ~보는 안목이 있다. * suit : ~에 어울리다</p>	<h3>帯绿帽 dài lù mào</h3> <p>녹색 모자 쓰고 중국가지 마세요</p> <p>‘녹색(綠) 모자(帽)를 쓰다(帶)’는 글자 의미로 중국에서는 ‘바람 난 아내를 둔 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p> <p>옛날에 남편이 장사를 나간 사이 옷감 장수와 눈이 맞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남편이 장사를 나갔습니다. 이를 본 옷감 장수가 기회다 싶어 그날 밤 그 여자 집으로 갔는데, 느닷없이 남편이 돌아오는 바람에 짝짝없이 침대 밑에 숨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p> <p>다음날 옷감 장수가 여자에게 녹색천을 주면서 녹색 모자를 만들어 남편이 장사길을 떠나 당일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남편에게 녹색 모자를 쓰고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녹색모자를 쓰고 길을 떠났고, 옷감 장수는 한달음에 여자의 집으로 달려왔던 것이죠.</p>	<h3>彼は気が短いから。</h3> <p>성질이 급하니까</p> <p>A : 彼とは話し合いが出来ないよ。 B : どうして。 A : すぐむきになるだ。 B : 彼は気が短いからね。</p> <p>A : 그와는 의논이 안돼요. B : 왜? A : 급방 정색을 하고 화를 내거든. B : 성질이 급하니까 그래.</p>
<p>&lt;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gt;</p>	<p>&lt;동아 외국어학원&gt; www.donga.tv ☎ 222-6253</p>	<p>&lt;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gt;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lt;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gt; http://www.kjasuka.co.kr ☎ 232-1503</p>